

자기를 낮추는 자 (마 23:1-12)

오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왜 자기를 낮추라고 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정말로 승리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죽으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그래서 복음 있는 자는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 받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아주 즐거웠을 것이다.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갔다. 반면 나사로는 거지였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 개들이 현대를 핥을 정도였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 고생하면 뽕살하니까 천국 보내고 이땅에서 잘 산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다. 나사로에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있던 것이다. 그러니 천국 간 것이다. 부자는 이 복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복음이 미래를 결정 하다니 참 놀랍다.

모든 인간은 이 기준에 복종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기준일 뿐 아니라 인생의 답이고 무기이다 .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단은 아직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나?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직접 해야 한다. 그냥 기도만 하는게 아니라 복음으로 전쟁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어느날 무너지게 된다.

이 복음이 백성 중에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평안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쟁 일어났을 때에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다. 이런 일은 몇번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때는 우박을 내려 다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서 놀라 도망가기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보니 얼마나 먹을 게 많이 있던지 처리하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나? 복음 앞에 흥해도 갈라졌다. 왜 갈라졌나? 이 복음이 있고 복음 운동 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발악을 하고 기도해도 안갈라진다. 이유가 없으니. 그리고 만나가 광야에서 매일 내려왔다.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내려온다. 왜? 먹을게 이미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다. 다시 한 번 주신 답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기 바란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무기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1.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당시 주역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삶과 비교를 해가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록하였다.. 우리에게도 아주 많은 참고가 되겠다.

마 23:2~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은 모세가 한 말이니까 따라하지만,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한다고 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5절에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없는 거다.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이런식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랍비라 칭함 받고.. 이런 걸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8절에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10절에 지도자라고 칭함도 받지 말라고 했다. 지도자는 하나!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11절에 결론을 이야기 하셨다.

마 23: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평범한 이야기같지만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삶이나 말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전달되고 본질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는 삶이나 말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다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물론 영적 이유가 없단 말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은 아주 터무니 없는 종교지 않나? 완전 껍데기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사람을 속여 죽게 한다. 그게 이단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곳에 왜 가난 말이다. 이단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주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일단사람이 아주 좋게 보인다.

그래서 우린 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부분에 부족해 보이는 우리보다도 친절함 이단이 더 낮게 보이는 것! 나중에 그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돌아서지 않는것. 오히려 부족한 행위를 보고 너희는 복음인데 왜 그모양이냐고 되받아친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인본주의 냄새가 난다면 일부러라도 안하지 않나? 우린 정말로 진실되게 복음만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 표현이 안 되니 잘 안된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자세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자세를 낮추라고 하셨다. 아무리 바른 복음이라도 교만해서는 절대 복음 운동 안 일어난다. 이런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안다. 인간 세포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자세를 낮추라고 하신다. 우린 모두 이런 삶과 자세 말투등으로 고쳐나가야 하라 것이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하나 깊이 치유 받아야 한다. 내가 겸손하지 못한건 영적 문제이다. 누가 이야기 할 때 막 튀어나오고 하는 건 영적 관리가 아직 안 된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면 자꾸만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뀌어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신경 안 쓰인다. 그렇게 해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복음 전하라. 이러너 우리의 바깥 모양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복음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2. 지도자 그리스도

마 12: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이기에 우리의 지도자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셨다. 내가 원해서 감사하고 종이 되고 싶은 그런 지도자! 자세를 낮추는 자의 능력과 권세가 여기에 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이다! **빌립보서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 즉 같은 원리란 말이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셨다. 11절에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불신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가 온다. 세상에 살때는 모른다. 이 단어가 안들어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보면 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이다. 그러나 폭군이 아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한 이야기이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폭군이였다면? 우리는 하나 마디로 죽어나는 것이다. 정권이 폭군이 되어보라. 이상해지는 것이다. 근데왕이 오히려 백성을 위해 죽으셨으니 놀랍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를 만난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종되고 일하고 싶음니 지도자가 된 것.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 같으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고 몇프로나 되겠나? 그렇다면 우리 너무 귀한 사람이다. 진짜 복음을 가진 시대적인 전도자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능히 자기를 죽이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이걸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영적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영적 치유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걸 양보하고도 남을 만큼 응답이 풍성해야 한다. 흑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직 없어도 누림이 풍부해서 다음에 오는 응답에 대해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걸 양보하고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적 일이 아니다. 영적으로 이미 정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수준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노력도 하고 결심도 해야겠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승리한 자가 누릴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자 권세이다. 이런 정복이 있는 자는 가난해도 양보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안하시기 때문에 4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자라는 단어들이 나온 것이다.

요셉은 보고 가지 않았다. 총리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해하고 용서하였다. 이미 영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내게 들어와 언약이 딱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즉시로 미리 보게 된다. 미리 보이면 그건 미리 잡고가지게 되있는거 아닌가? 아직 응답이 안 왔어도 응답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미리 응답 받는 것이다. 이것가지고 시작하는 살마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확신 있는 사람은 모든 행위에서 자신만만하고 여유있다. 이게 응답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람은 늘 무엇을 하든 불안하다.

아직까지 응답은 안왔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미리 본다는 것은 언약을 바탕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는 지도자이다.

주님께서 또 이야기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지도자이고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다! 아버지도 하나라고 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도 하나고 선생님도 하나야! 그리고 지도자도 하나뿐이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 선생님도 하나라는 말은 내가 너의 선생이고 내가 그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앞서가는 지도자는 한 분 뿐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길잡이는 한 분 뿐이라는 것이다. 진실하여 속이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이다.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으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 해버린다. 잘 나가다가 딱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진실하고 성실하시다.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뒤집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맨날 뒤집고 바꾸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다. 내가 찾아가도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기도하면 늘 응답 하신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다음에 온다 해도 마음에 응답은 항상 온다. 죄를 많이 짓고 세상 어딘가를 돌아다녀 엉망진창인데도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시 평안이다. 놀랍다.

우리가 만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는데 기도해도 응답 없다? 난리 난다. 속에서 폭발한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다. 진실하고 성실해서 평생을 두고도 따라가라 만한 지도자이다. 진실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완전하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것. 내가 따라가지만 하면 절대 실패 하지 않는다. 이런 분, 이런 방법이 세상에 있는가? 어떤 것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너희에게는 한 분 나야! 나라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를 누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의 소원이 우리의 삶이 되면 뭐라고 하나? 이걸 보고 사명자라고 하신다. 천명을 가진 자라고 하신다. 우리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형제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만 우리 중처럼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다. 이걸 자존심 다 깨지는 그런 일이 아닌 것. 이게 바로 인간 최고의 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다. 고백하고 누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누림은 대단하고 묘한 것이다. 고백하고 있으면 답으로 나타난다. 놀랍다.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는데 돈이 드는가? 할 때 오히려 은혜 받고 힘 받는다. 그가 우리에게 인생이 답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그가 우리 인생을 지도하고 이끈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피조물은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손톱 하나 우리 것 아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키우는가?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지도자를 찾겠는가? 찬송가에도 있다.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부족한 우리가 이 은혜안에 있다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싶다.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깊이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